



가난하고 압제받는 사람들의 하나님

시편의 많은 구절은 주께서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왕들도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그가 (=왕이)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이다." (시 72:4)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끝까지 그런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왕상 12:4).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그런 왕이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 (벧전 1:9)인 우리도 주님처럼 해야 합니다.

지금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불의와 가난으로 고생하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위클리프 성경번역선교회 역시 가난과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도움과 장기적으로 그들의 경제적 형편을 개선시켜 줄 제도적 발전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라과이에서 지역교회를 동원하여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장기적 안목에서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그 공동체에 실질적인 도구를 마련해주어, 외국인이나 국내의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 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6/25	6/26	6/27	6/28	6/29	6/30	7/1
시 25-33	시 34-38	시 39-45	시 46-53	시 54-61	시 62-68	시 69-72

"대부"격이 되는 사람들이 와서 계획한 일이나 프로젝트를 마치고 떠나더라도,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경번역 선교사인 마를린 라즐로는 글을 읽지 못하는 세픽 이암 사람들이 당하는 불이익에 분개했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은 호주 지폐 20달러로 담배를 맡아 피웠습니다.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백 달러" 가치의 악어 가죽이 부당하게도 "뉘시 바늘 몇 개, 작은 소금 봉지 하나, 손전등 혹은 동전 몇 닢"에 거래 되었습니다.

마를린은 줄자와 계산기를 샀고, 파푸아뉴기니 정부에서 발행한 악어가죽 가격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우나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게 속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폐의 가치와 악어 가죽 가격이 얼마인지 가르쳐주었습니다. 또한 글 읽기와 간단한 셈법을 배우지 않으면, 앞으로도 또 속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우나 사람들은 어안이 병병했고, 기본 셈법과 읽기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저희에게 하시는 일은 옳지 않습니다."

"닥쳐, 이 꼬마 녀석아! 니가 뭘 안다고 그래?! " 악어 가죽 장사가 말했습니다.

예의를 갖추고 타고난 겸손함으로 풀이 다시 말했습니다. "괜찮으시면, 제가 보여드리죠."

그는 줄자로 가죽의 크기를 재고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발행 가격표에서 그 크기에 맞는 가격을 찾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가죽은 300파운드 짜리입니다."

그 날, 하우나 사람들은 악어 가죽 장사들에게 당하지 않았습니다! (마를린 라즐로/루씨 투마스 공저, *Mission Possible*, 71쪽에서 발췌)

그들이 읽기와 단순한 셈을 배웠을 때, 정의가 회복되었고, 가난한 자들이 스스로를 도왔습니다. 성경번역 선교사역을 통해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대리인이 되어 가난하고 압제받는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게 됩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문해사역과 이중/다중언어 교육을 통해 오래 동안 착취당하던 사람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말로 번역된 주님 말씀의 교훈을 통해 그들의 공동체들이 인애와 진리의 공동체로 바뀌도록 해주세요!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성경번역 선교
주간기도제목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God of the poor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Many verses in Psalms declare that the Lord is God of the poor and oppressed. Likewise, kings are supposed to be God's agents by practicing justice and giving care for the poor. "May he vindicate the afflicted of the people, Save the children of the needy And crush the oppressor." (Psalm 72:4) King Solomon was not consistent in doing this (1 King 12:4) but Jesus the King was. We as royal priests (1 Peter 2:9) must represent our King Jesus in the same way.

There are so many people in this world who are not treated well by others and suffer from injustice and poverty. This is why Wycliffe Bible Translators put our focus on fighting against poverty and injustice. We try to help them for both immediate needs and long-term systemic development that eventually improve their economic situations.

In Paraguay, for example, we mobilized local churches to help with immediate needs: food and clothes. We also raised dozens of scholarships for High School and College students as

Sun, June 25	Mon, June 26	Tue, June 27	Wed, June 28	Thu, June 29	Fri, June 30	Sat, July 1
Psa 25-33	Psa 34-38	Psa 39-45	Psa 46-53	Psa 54-61	Psa 62-68	Psa 69-72

a way to provide long-term empowerment. We find that these kinds of activities, however tiring or time-demanding, will give the communities practical tools that will help them meet their needs themselves, not depending on foreign or national "godfathers" that may leave the place when their own plans and projects are fulfilled." (How to Develop a Holistic Impact as a Bible Translation-focused Organization: LETRA Paraguay as an emerging national model, by Victor A. Gómez)

Marilyn Laszlo was indignant when she saw illiterate Sepik Iwam people disadvantaged. She saw one of the elders smoke a cigarette which was wrapped by a paper money, Australian 20 dollar bill. "Several-hundred-dollars worth" crocodile skin was unfairly sold only for "a few fish hooks, a small bag of salt, flashlights, or a handful of coins."

She bought calculators and measuring tapes, and found the Papua New Guinea government issued price list of crocodile skins. She explained how badly Hauna people were cheated by telling them the value of paper bills and crocodile skins. She added that they would be cheated again if they wouldn't

learn how to read and count. Hauna people were stunned and decided to learn the basic arithmetic and reading.

"Excuse me, Masta. What you are doing to my people is not right."

"You shut your mouth! You are nothing more than a jungle boy!" the trader shot back. "what do you know?!"

Showing respect and natural politeness, Paul said again, "Excuse me, Masta. I would like to show you."

Pulling out the tape measure, he laid it against the skin, then wrote down the numbers. After checking the government price list for a skin of that dimension, he softly said, "This skin is worth 300 pounds."

The Hauna men were not cheated by crocodile-skin traders that day! (p. 71, from *Mission Possible*, by Marilyn Laszlo with Luci Tumas)

Justice is restored and the poor help themselves when they know how to read and do simple math. Bible translators are often times become God's agent answering the poor and oppressed.



Week 26 Prayer: Thank you Lord for bringing Your justice into these people exploited for years with literacy and bi/multi-lingual education. With the teachings of Your translated Word in their language, please help their communities be transformed into those of mercy and truth.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